불자 세상보기

자비심이 영화 '변호인' 흥행의 힘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영화 '변호인' 은 한 정의로운 인간을 그린 것처럼 보인다. 영화 속 주인공 송우석(송강호 분)은 평범한, 어찌 보면 속물적인 세금 전문 변호사였다. 당시 그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는 체념이 깔린 절망이었다.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것. 흔히 비유하는 그것은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가 비겁하다고 해서 정의로운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그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그건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전해들은 상식이며 처세술이다.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수긍한 것이다.

어느 날 그런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다. 그는 서민에서 투사로 태어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면에는 순수하다 못해 순진한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한다. 우석은 권력을 논리로 이겨보려고 한 것이다. 법정과 헌법을 믿은 것이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논리가 비논리를 이긴다고 생각했다. 법정에서 권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피해자의 처지를 항변하였다.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다. 권력은 그렇게 호락호락 그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 서야 했다. 법정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권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는 세상이 거짓임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금강경에 나오듯 세상은 이슬이요, 번개고, 그림자였던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드라마 속에 살고, 결국 주인공임을 깨닫는다. 영화 속 주인공 우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허위의 세계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이 영화는 한 인간의 깨달음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은 한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얼마나 정치권력에 밀착되어 민주주의에서 퇴행하고 있는가를 고발한 것이다. 송우석이 주로 싸우는 것은 법 해석에 관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우위에 서서 피고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을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 영화는 독재가 법을 제멋대로 전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란 무엇보다 먼저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 그런 법은 법도 아니다.

부처님은 입멸하시면서 법을 등불삼아 살라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내리셨다. 법은 인간보다 중요한 것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부패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법이란 여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태인 것이다.

영화 '변호인' 에는 국밥집 주인 최순애(김영애 분)가 나온다. 송우석은 소시적에 국밥을 먹은 후 도망친 경험이 있다. 변호사가 된 후 우석은 빚을 갚으러 갔으나, 순애는 받지 않는다. 순애는 전형적인 서민이며, 마음씨 착한 사람이다. 순애의 보시는 상대를 보고 하지 않는다.

어쩌면 순애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화신처럼 느껴진다. 우석은 이후 국밥집을 단골로 드나든다. 순애는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리한다. 순애의 아들이 고초를 당하자 우석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순애를 통하여 그 아들은 마치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느껴진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발동한다.

우석이 변호를 맡게 된 것은 순전히 자비심 때문이다. 순애와 같은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있어 순애의 슬픔은 순수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이며,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다. 인간을 길러내는 모태가 무너지고, 오염되는 일이다.

순애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어른들에게 어머니요, 젖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철모르던 어린 시절 이런 어머니들이 주는 밥을 먹으며 자라났다. 커서 당연히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한다. 그 마음이 송우석을 움직인 것이다.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고,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 커다란 마음도 작은 동정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란 커다란 게 아니라, 결국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社說

유물기증 운동은 종단 역사 되짚는 불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종단의 역사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축사업에 돌입했다. 그 일환의 첫 번째로 근현대 스님들의 소장품을 기증받는다. 이 운동은 불교계의 유물기증문화 확산과 함께 박물관 소장 유물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유물 기증 사업은 불교계에서도 현저히 인지도가 낮은 근현대문화유산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1차적으로 현직 종정 스님과 원로 · 중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종회의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스님의 소장품의 기증을 유도한다. 이후에는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유물은 사용하고 있는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등 생활용품과 법구를 비롯해 종단 역사 정리에 도움이 되는 유물, 기록사진, 서신, 승려증 등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된다. 원할한 유물 기증을 위해 기증 시 특전과 예우도 마련한다. 각종 전시 출품 시 기증자 성명을 명시하고 유물의 복원 수리, 훈증 처리와 복제품을 요구했을 경우 복제품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기증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증자 및 기증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서 발급과 총무원장 명의의 감사패도 증정된다.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사 한 벌도 종단서 제대로 소장하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종단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불사다. 박물관측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현존하는 주요 스님들의 소장품 기증을 독려한 뒤 역대 종정 스님 문중에게도 소장품 기증을 부탁하려 한다고 하며, 기증 방법은 연구 기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 등 변화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이고 종단의 교과서적인 '통사(通史)' 를 기술할 수 있다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이벤트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적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환영한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화두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소비로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사회 역시 대형 토목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사회 갈등 요소가 된지 오래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래강인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댐 공사로 모래가 유실되면서 자갈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영주댐이 완공되면 내성천 19km 구간, 10.4㎢의 유역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된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옛 천성산 지킴이로 활동했던 지율 스님이다. 스님은 2012년부터 강둑에 텐트를 설치하고 내성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겨울바람처럼 차갑다.

이런 상황에서 내성천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 지원과 땅 한평 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불교' 를 슬로건을 내건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기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문이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를 천명한 바 있다.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도 이웃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최근 조계종은 노동, 환경, 지역 갈등 등 사회 전반의 현안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내성천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종단이 참여하는 것은 생명붙이들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현장 속으로

다문화 가정 설 맞이 행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목동 국제선센터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해 국제선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이웃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담당실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만두 빚으며 한국의 情 나눈 뜻 깊은 시간"

폭설과 강추위가 심했던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제선센터에서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려 얼어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제선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이웃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력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 '사찰식 만두' 를 빚고, 지역 내 장애인들과 나누는 사찰음식 나눔의 장이었다.

참여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100여 명과 조계종 국제선세터에서 초청하고, 양천경찰서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양천구지역 내 다문화가정 5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150여 이주여성들이 사찰식 만두를 빚고 있다.

오전 10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은 모국어로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도 법사 스님의 지도로 5분 명상이 시작되자, 모두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다들 집중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에게 만두 빚기는 익숙한 활동이었다. 재밌던 것은 각 나라마다 만두를 빚는 모양이 달라 문화 차이를 느꼈던 점이다.

절집에서의 행사라 만두는 당연히 고기와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사찰식 만두' 였다. 참가자들은 오순도순 만두를 빚으며 그들의 나라에서 지내오던 설 풍습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날 다문화가족이 함께 빚은 일곱 빛깔 무지개 만두 500개는 양천장애인복지관을 거쳐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전달됐다.

이어서 진행된 염주 만들기 시간. 스님이 명상 문 한 소절을 읽으면 염주 한 알을 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국에서 시집살이하며 느꼈던 고달픔과 서러움이 물밀 듯 밀려왔는지, 한 여성은 평평 눈물을 쏟기도 했다.

외국인을 위한 설 문화 체험 행사는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국제선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찰에서 명상과 사찰음식을 테마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됐다는 허금화 씨는 "단주만들기를 할 때 한 알 한 알 단주를 낄 때 스님의 기도를 따라하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 같아 묘했다"며 참가 소감을 밝힐 정도로, 이날은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실천해 다문화이웃이 진정한 한국의 이웃이 됨을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지은(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 팀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